

임피 출신 이인식(李仁植, 1901~1963)의 독립 운동

김두현*

논문접수일: 2019. 11. 5.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일본에서의 금우회 활동 |
| 2. 가문과 초·중등 교육 및 혼인 | 4. 임피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 |
| 1) 가문 | 5. 만주 목단강에서의 독립 운동 |
| 2) 초·중등 교육 | 6. 삶에 대한 자세 |
| 3) 혼인 | 7. 맺음말 |
| 3. 독립운동 | 참고문헌 |
| 1) 3·1만세 운동 참여 | <Abstract> |
| 2) 임정에 독립 자금 기부 | |

국문초록

이인식의 가문은 그의 14대조 이화가 16세기 중엽에 임피현으로 이주한 이후 400여 년 동안 대대로 향리 직을 역임한 전주이씨 시중공파 문정공파 가문이었다. 이인식은 이태하와 김제조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한 이후 임피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초에 제2회로 졸업하였다. 1916년에 서울의 사립 보성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함열의 가림 조씨 조득과 조훈하였다. 당시 이인식의 집안과 함열의 가림 조씨 집안 사이에서는 연혼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인식은 1919년 3월 1일 당시 보성중학교 학생 대표와 전북 학생 대표로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탑골 공원 만세 시위 때에는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군중들을 미국 영사관 방향으로 유도하였고, 그 날 밤에는 독립신문을 배부하였으며, 3월 5일 남대문 시위 때에는 붉은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독려했다.

* 군산중앙고등학교 교사, E-mail: 77history@hanmail.net

이후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19년 11월에 미결 구류 일수 90일을 산입한 징역 7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1920년에는 자신의 재산 거금 8천원을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주에까지 가서 임시정부 요원에게 건네주고 애국 공채를 받아왔다. 1923년에는 일본 동양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입학하고 금우회를 조직하여 월보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1925년에는 임피 지역의 중학 기성발기회에서, 1927년에는 임피 지역 청년회의 혁신총회에서 각각 회계와 경리로서 활약하였고, 1928년에는 임피 지역 야학에 의연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였으며, 임피 보통학교에 소년 악대(樂隊) 1조를 기부하였다. 1929년 이후의 어느 시기에는 만주 목단강 유역으로 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정보 수집, 군자금 조달 등의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토록 이인식은 일제 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그의 삶의 기저에는, 인내와 노력을 중시한 그의 인생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제어 : 이인식(李仁植), 임피, 독립 운동, 3.1운동, 애국 공채, 금우회(錦友會), 향리

1. 머리말

이인식(李仁植, 1901~1963)은 군산 임피 출신 독립 운동가이며 교육자였다. 본관은 전주, 호는 춘고(春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 운동을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삶 중에서 본고에서는 일제 강점기 그의 독립 운동을 탐구하겠다.¹⁾

지금까지 이인식의 독립 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향토 사학자나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역사 연구자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인식이 1919년 3·1 운동 당시 탐골 공원에서 독립 만세를 외칠 때 학생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0개월 간 감옥살이를 하였다는 것, 이듬해 1920년에 당시로서는 거액인 8천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것, 1923년에

1) 이 논문은 필자의 다음 심포지엄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김두현, 『이인식의 독립 운동과 교육활동』,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의 역사적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문, 2017. 12, 군산문화원). 그 주된 것들은 이인식의 가문, 1919년의 삼일 운동 당시 이인식의 체포 경위와 학생 대표로서의 지위 및 판사의 선고 내용, 1920년 이인식이 임시정부에 헌납한 8천원의 당시 쌀값으로의 환산, 1923년 이인식의 임피보통학교 동창회장 선출 및 동창회 회보 발간, 그리고 동창회 회보에 실린 이인식의 글을 통한 청년기 그의 인생관 등에 대한 것이다.

일본 동양 대학에 입학하여 『錦友會月報』를 발간하며 제2의 독립 운동을 모색하다가 발각 당하여 도중에 중퇴하였다는 것, 이후 만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독립 운동을 하였다는 것 등이다.²⁾

그러나 기존의 연구 내용 중에는 거의 대부분 전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내용 중에 사료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다. 또한 소소하지만 약간씩 서로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경우 과연 어떤 것이 사실인가도 의문이다. 아울러 기존의 연구 내용에 이인식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독립 운동 사실도 혹시 있는가 궁금하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곧, 이인식의 독립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사료로 검증하고, 새로운 독립 운동 사실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이인식의 가문, 혼인,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 그의 삶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2. 가문과 초·중등 교육 및 혼인

1) 가문

조선시대에 가문을 떠난 어느 한 인간은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가문 안에서 존재하였다. 가문이 어느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력은 막강하였다. 그렇기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종중의 선산 곧 종산(宗山) 마련, 시제 봉행, 서원과 사우 건립, 족보 편찬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³⁾ 이인식이 살았던 시대는 대

2) 이인식에 대한 기존의 주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臨中五十年史』, 임피중학교총동문회, 1999.; 『이인식과 그 시대』,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선생 기념사업회, 마하테크, 2019(3판). 3(2014년 1판·홍익재, 2015년 2판·홍익재); 『우리 고장의 자랑 殉國先烈과 愛國志士』, 대한민국광복회 군산지회, 정명인쇄사, 2016, 제2부, 5. ‘군자금헌납 이인식(李仁植)’); 『이병기 전창련의 산책』, 전창련, 도서출판 토탈, 2016; 『애국지사 이인식 선생 칭출어람 제자들 이야기』, 황현택, 인문사artcom, 2016).

3) 이인식의 전주 이씨 가문이 세거하였던 현재의 군산 지역(조선시대 옥구·임피 지역)에서 세거한 각 가문들에 대한 필자의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두현, 『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2010; 『平康 蔡氏의 臨陂 入居와 入居 이후의 거주지 이동』, 『東洋學』 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한제국 시대 말기와 일제 강점기 및 해방 직후 시기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인식의 독립 운동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문에 대한 이해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인식의 가문과 가족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한 것들만 알려져 왔다. 곧, 이인식의 가문이 전주 이씨 시중공과 문정공과 성동파라는 것, 아버지 이태하(李泰河, 1860~1922)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몇몇 관직을 지냈다는 것, 형제가 3남 2녀라는 것 정도이다.

이인식 집안에서 편찬한 족보인 『전주이씨시중공과문정공세보(全州李氏侍中公派文正公世譜)』(1995)에, 이인식은 아래 <가계도 1>과 같이, 전주 이씨 시중공과 문정공과 성동파 임피 입향조 이화(李華)의 15세손으로 수록되어 있다. 시중공은 전주 이씨 시조 이한(李翰)의 15세손이며 고려시대에 시중을 지낸 이단신(李端信)이었고, 문정공은 시조 이한의 22세손으로 조선 건국 초에 이조 판서를 지냈고 시호가 문정(文正)인 이승길(李承吉)이었다. 문정공 이승길의 8세손인 이계윤(李戒胤)과 이화(李華)가 각각 임피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이들의 후손들이 전주 이씨 시중공과 문정공과 임피 남산파(南山派)·위파(爲派)·구파(龜派) 및 임피 성동파(城東派)·취남파(鷲南派) 등을 형성하였다. 이화가 임피 지역으로 이주한 시기는 그의 손자 이원생(李元生, 1572~?)의 출생 연도로 보아, 16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곧, 이인식은 4백여 년 동안 임피 지역에서 세거한 전주 이씨 시중공과 문정공과 성동파 가문 출신이었다. 이인식의 아버지는 이태하이며, 어머니는 김제 조씨(조동학(趙東學)의 딸(1861~1923))였다. 앞의 족보에 이태하가 1893년(고종 30)에 통사랑 제릉 참봉, 1902년(광무 6)에 중추원 의관, 1903년(광무 7)에 궁내부 참서관, 1905년(광무 9)에 비서감승, 1906년(광무 10)에 가선대부를 각각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군산 지역(조선시대 옥구현, 임피현) 세거 가문의 입거와 입거조』,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논문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전국문화원연합회, 2014; 『군산 지역 세거 가문 연구 현황과 전망』, 『군산의 근대 풍경: 역사와 문화』, 군산대새만금종합개발연구원, 2015; 『군산 지역 가문과 인물 I -옥구편-』, 군산문화원, 2018; 『임피 거주 광주이씨(廣州李氏) 이극건가(李克堅家)의 임피 입거(入居)와 타관으로의 이주』, 『군산학의 지형』, 군산대인문도시센터, 2019; 『군산 지역 가문과 인물 II -임피편-』, 군산문화원, 2019).

4)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태하가 1899년(광무 3)에 제장원 경기각둔토목장사검위원(京畿各屯土牧場查檢委員), 1900년(광무 4)에 내장원 봉세관, 1901년(광무 5)에 제주목 목사, 1905년(광무 9)에 정3품 순강원(順康園) 수봉관과 경기도 봉세관을 지냈으며, 1907년(융희 원년)에 전주지방위원회의 임피 지방 위원에 선임되었다고 한다(이경란, 『일제하 임피지역의 주변화와 조선인 유지층의 동향』,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474~476쪽).

〈가계도 1〉 이인식의 가계도⁵⁾

시조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李翰	自延	天祥	光禧	立全	兢休	廉順	承朔	充慶	景英	忠敏	華	珍有	宮進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端信 侍中	作山	公直	開	琰	培	賀	承吉 文正	輪	孟智	淑孫	處善	綱	義裕	戒胤 入鄉
												完	貞潔	華 先生 入鄉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2세	43세
華 先生 入鄉	德麟 先生	元生 先生	泰極	彬 吏房 孝子	必簡 吏房	益堊 益三 吏房 戶長	鳳來	東浚 東俊 吏房 戶長	學松 戶長 吏房	文豹 文彪 吏房 營吏	孟基 宗奎 戶長	錫震	永澤 泰下 戶長	仁植 獨立

2) 초·중등 교육

이인식은 이태하와 김계 조씨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1901년 10월 22일에 옥구군(현재의 군산시) 임피면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1963년 3월 25일에 옥구군(현재의 군산시) 서수면에서 사망하였다.⁶⁾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 이후 이인식은 임피 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2006년에 간행된 『임피초등학교 100년사』에 이인식은 임피 보통학교 2회 졸업생으로 기록되어 있다.⁷⁾ 그러나 졸업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의 『임피초등학교 100년사』에 17회 졸업생의 졸업 연도가 1929년, 73회 졸업생의 졸업 연도가 1985년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회 졸업생의 졸업 연도는 1914년(당시 나이 13세) 초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⁸⁾ 졸업 이후 이인식은 15세 때인 1916

5) <가계도 1>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위에 이름은 족보에 수록된 이름이고, 아래 이름은 『鷲城椽房先生案』에 수록된 이름이다. 그리고 ‘先生’이라는 표기는 『鷲城椽房先生案』에 선생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호장 또는 이방을 지냈다는 기록이 없다는 뜻이다.

6) 『全州李氏侍中公派文正公世譜』, 3권 3책, 개인 소장, 1995, 권3, 690~705쪽.

7) 『임피초등학교 100년사』, 임피초등학교 충동문화, 2006, 139쪽.

8) 『임피초등학교 100년사』에는 1회 졸업생으로 이인식보다 1년 먼저 태어난 그의 장질(長姪) 이병관(1900~1947) 등 14명이, 2회 졸업생으로 이인식을 포함하여 오원득, 황정규 등 3명이, 3회 졸업생으로 이인식보다 1년 늦게 태어난 채만식(1902~1950) 등 6명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앞의 『임피초등학교 100년사』, 2006, 139쪽). 앞의 『臨中五十年史』(1999, 202쪽)의 「愛國志士 春阜 李仁植 先生の 略歷」에는 이인식이 임피 보통학교

년에 서울의 사립 보성학교⁹⁾에 입학하였다. 사립 보성학교는 당시 3년제 중학교로서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다. 이인식이 사립 보성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그의 아버지가 천도교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인식이 경성 법원에서 검사로부터 신문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종교가 유교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큰 조카 이병관(李炳寬, 1900~1947)은 중앙고보를 다녔다. 이병관은 조카인데도 이인식보다 한 살 더 많았으며, 삼일운동 때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이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3) 혼인

사립 보성학교에 입학한 1916년에, 이인식은 15세의 나이로 가림 조씨(嘉林趙氏) 조갑식(趙甲植)의 딸 조득(趙得, 1900~1955)과 혼인하였다. 당시 조득은 이인식보다 1살 더 많은 16세였다. 조혼(早婚)을 한 것이었다. 전통기 한국 사회에서는 그 언젠가 부터 조혼이 유행하였다. 18·19세기 서울에서 거주한 기술직 중인의 경우 만 11세~14세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조혼 양상은 법으로는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지만,¹⁰⁾ 실제로는 갑오개혁 이후인 20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혼인 연령이 조금씩 높아져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익산 지역 성씨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이인식의 처가 속한 가림 조씨 가문은 함열에서 세거 하였던 성씨이며, 임천 조씨라고도 불렀고, 대대로 향리직을 역임한 집안이었다고 한다. 이인식의 집안에서는 함열의 가림 조씨 집안과 연혼을 하였다. 이인식의 조부 이석진(李錫震, 1846~1890), 중형 이관식(李寬植, 1887~1918), 조카 이병관과 이병양(李炳陽, 1906~1947), 그리고 고모와 둘째 누나가 각각 가림 조씨와 혼인하였다.¹¹⁾ 그렇다면 이인식의 집안도 향리 가문이었을 가능

1회 졸업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9) 1906년 9월에 이용익이 사립 보성중학교를 창립하였고, 1910년 12월에 천도교 총본부 가 본교 설립자가 되었다. 1913년 12월에 사립 보성학교로, 1917년 7월에 사립 보성고 등보통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22년 4월에 학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교명을 보성고등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10) 김두현, 『18·19세기 중인의 조혼 연령 및 배우자의 신분』, 『향토서울』 73,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9. 2

성이 크다. 그래서 임피 노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취성연방선생안(鷲城椽房先生案)』¹²⁾에서 그의 선대 조상들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앞서 제시한 <가계도 1>과 같이, 이인식의 14대조 이화부터 아버지 이태하에 이르기까지 14명의 직계 조상 중에 단지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이방(吏房)이나 호장(戶長) 등을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수록되어 있지 않은 3명도 이방이나 호장을 지내지 않았지만 향리 직을 역임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인식의 선대 가문은 대대로 향리 직을 역임한 임피 고을의 대표적인 향리 가문이었다.

3. 독립운동

1) 3·1만세 운동 참여

1919년 3·1 만세 운동에서의 이인식의 역할, 위치, 검거 과정, 재판 진행 과정, 판결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서술 전개의 편의상, 검거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언급하면서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이인식의 체포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이 있었다. 곧, 이인식이 독립 만세 운동을 하고 다니다가 체포되었다는 설과, 동경 유학생 및 서울 시내 학생들과 밀의를 하다가 3월 5일 밤에 체포되었다는 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인식이 체포되었을 당시 이인식과 함께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인원이 63명이라는 설과, 63명이 발견되었지만 43명이 검속되었다는 설¹³⁾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이인식이 3월 5일 밤에 동경 유학생 및 서울 시내 학생들 63명과 함께 밀의를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판단하게 만든 문서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1919년 3월 6일에 작성된 『高第五九七一號』라는 문서이다. 작성자는 알 수 없고, 문서 첫머리에 ‘極秘’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수신 처로 조선 총독, 정무총감 등 식민지 통치에 앞장선 일제 수뇌부들이 거의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일제의 한국 식민지 통치 수뇌부들이 3·1 만세 운동을 매우 심

11) 앞의 『全州李氏侍中公派文正公世譜』, 1995, 권2, 277쪽 및 권3, 690~705쪽. 이인식의 재당숙 이순하(李純河, 1879~1908)와 이건하(李建河, 1896~?)도 가림 조씨와 혼인하였다(앞의 『全州李氏侍中公派文正公世譜』, 1995, 권3 705, 706쪽).

12) 『鷲城椽房先生案』, 임피 노서당 소장. 향후 앞의 『鷲城椽房先生案』에 대한 탐구를 하여 그 연구 결과를 논고를 달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13)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9, 137쪽.

각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 이 문서에는 3월 6일 당시 서울 및 전국 각지의 3·1 만세 운동 실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앞부분에 학생들의 체포 기사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경성 각도의 천도교도가 경성의 (3·1 만세) 운동을 성원하기 위해서 속속 서울에 들어오고 있으며, 아직도 다수가 서울로 들어오고 있다는 설이 있다. 또 불량 학생 등의 선동과 협박은 점차 공립보통 학교와 하급 조선인 경무관, 관공립 학교 조선인 직원에 미치고 있으며, 다시 각 방면에 확대되고 있다. 이를 엄히 단속하던 중 (3월) 5일 밤 11시 경에 일본 동경 유학생 및 서울 시내 학생 등 63명이 경성부 송현동 62번지 이인식(李仁植)의 집에서 회합을 갖고 몰래 숙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속하였다. (이튿날) 6일 오전 3시 경부터 경성 내 각 부대와 경찰서에서 일제히 수사를 개시하여 (3·1 만세) 운동 관련자 43명을 검속하였고, 『獨立新聞』, 『國民會報』, 『警告文』 등 불온 격문을 발견하였다....¹⁴⁾

앞의 기록은 3월 5일 밤 11시 경에 서울 송현동 62번지 이인식의 집에서 동경 유학생 및 서울 시내 학생 63명이 향후 독립 만세 운동을 비밀리에 숙의하던 중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이 기록을 근거로 임피 출신 독립운동가 이인식이 3월 5일 밤 11시 경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앞의 자료의 ‘이인식의 집’에서의 이인식과 본고의 주인공 이인식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3·1 만세 운동 당시 임피 출신 독립 운동가 이인식의 주소가 앞의 송현동 62번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19년 4월 19일에 경성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일본인 판사의 신문에 대한 이인식의 답변이 적혀 있는 재판 기록이다.¹⁵⁾ 이 때 이인식은 판사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주소를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중원방(金鍾元方)’이라고 말하였다. 이인식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것이다. 앞서 제시한 『高第五九七一號』의 비밀문서에는 이인식의 집이 ‘서울 송현동 62번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4월 19

14) 원본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하였다(『獨立運動에 관한 건(제7보)』, 문서 번호 高 第5971號, 작성일 1919-03-06, 국가보훈청 공훈전자자료관).

15)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5,三一運動 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豫審調書)(國漢文), 李仁植 신문 조서(1919년 4월 19일 경성지방법원 豫審掛에서 判事 堀直喜의 신문).

일의 판사의 신문에 대한 이인식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재판 기록에는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혹시 이인식의 주소가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는 앞의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본인 판사가 이병관과 김갑수에 대해 신문한 재판 기록을 찾아보았다. 과연 이들의 주소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앞의 1919년 4월 19일에 경성 지방 법원에서 있었던 일본인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인식이 자신의 주소를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고 말한 것과 아울러, “자신과 같이 하숙집에서 동숙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앙학교의 이병관, 채만식, 강성진, 김갑수, 휘문 고등보통학교의 김성록, 조남승 등과 3·4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병관과 김갑수는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먼저 이병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이병관에 대한 신문이 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이날 예심계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의 신문에 대해서, 이병관이 자신의 주소가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고 말한 자료를 찾게 되었다.¹⁶⁾ 이번에는 김갑수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김갑수 역시 이병관과 동일 시각과 장소에서 있는 동일 판사의 신문에 대해서, 자신의 주소가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고 말한 자료를 찾게 되었다.¹⁷⁾ 이인식, 이병관, 김갑수는 모두 같은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판사의 신문에 대해 모두 자신들의 주소가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인식이 3·1 독립 만세 운동 당시 하숙하고 있었던 집 주소는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종원방’임에 틀림이 없다.

『高第五九七一號』의 비밀 문서의 ‘서울 송현동 62번지 이인식의 집’이라는 기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고의 주인공인 이인식의 또 다른 주소에 있는 그의 집이라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인식이 서울에 집을 사 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이인식이 서울에 집을 사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을 따로

16)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7,三一運動 VI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李炳寬 신문조서(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豫審掛에서 判事 堀直喜의 신문).

17)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7,三一運動 VI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金甲洙 신문조서(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豫審掛에서 判事 堀直喜의 신문).

두고 다른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서울 송현동 62번지 이인식의 집’에서의 이인식과, 임피 출신 독립운동가 이인식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인식의 집’이라고 기록된 자료들이 이외에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주소가 서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곧, ‘서울 송현동 56번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고, ‘서울 송현동 76번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 이인식의 집이 ‘서울 송현동 56번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은 김기택(金基澤), 김유승(金裕承), 오충달(吳忠達) 등에 대한 일본인 검사 및 판사의 신문 내용이 기록된 것들이고, 이인식의 집이 ‘서울 송현동 76번지’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료는 박창환(朴昌煥)에 대한 일본인 검사의 신문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오충달은 앞의 신문 조서에서 당시 서울 송현동 56번지 이인식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던 사람들이 약 30명 정도였다고 한다.¹⁸⁾).¹⁹⁾ 바로 이상의 사실들은 ‘서울 송현동 62번지 이인식의 집’에서의 이인식과 임피 출신 독립운동가 이인식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여 준다.²⁰⁾ 그러나 동일인이 아닐지라도, 현재로서는 임피 출신 독립운동가 이인식이 3월 5일 밤 11시에 63명의 학생들과 함께

- 18) 한편 유병준(劉秉俊)은 1919년 8년 3월 8일 경성 지방 법원 검사국의 검사 옥명우연(玉名友彦)의 신문에 대해 자신의 집이 ‘서울 송현동 56번지’라고만 말하였고, 이인식의 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3월 1일과 3월 5일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는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 출생으로, 3·1 만세 운동 당시 27세였으며 보성고등보통학교 3학년생이었다(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4,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國漢文), 劉秉俊 신문조서(1919년 3월 8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검사 玉名友彦의 신문)).
- 19) 김기택은 평안남도 강서군 보림면 출생으로 3·1 만세 운동 참여 당시 22세로 국어보급학교 고등과 생도였으며(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4,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國漢文), 金基澤 신문조서, 1919년 3월 11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의 검사 橫田義太郎의 신문), 오충달은 강원도 통천군 학이면 출생으로 3·1 만세 운동 참여 당시 22세로 조선약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4,三一運動 I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 吳忠達 신문조서, 1919년 8년 3월 8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의 朝鮮總督府 檢事 橫田義太郎의 신문). 김유승은 함경남도 북청군 덕서면 출생으로 3·1 만세 운동 참여 당시 26세로 견학생이었으며(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7,三一運動 VI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 金裕昇 신문조서(1919년 8년 6월 17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판사 堀直喜의 신문), 박창환은 전라남도 순천군 송광면 출생으로 3·1 만세 운동 참여 당시 20세였으며 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3,三一運動 II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國漢文), 朴昌煥 신문조서, 1919년 8년 3월 7일 警務總監部 檢事 山澤佐一郎의 신문).
- 20) 「서울 송현동 62번지 토지대장」에는 토지 소유주가 1912년 8월 27일부터 1917년 8월 10일까지는 김인식(金仁植)으로, 1917년 8월 10일부터 김정윤(金禎潤)과 이은희(李恩喜)로, 1918년 10월 26일부터는 국가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앞의 토지 대장의 송현동 62번지와 본문의 비밀문서의 송현동 62번지가 동일 지번인가는 의문이다.

체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가능성만은 열어 두기로 한다.

현재까지 이인식의 체포 경위를 명확하게 알려 주는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인식은 1919년 3월 25일 이전에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1919년 3월 25일에 이인식에 대한 판사의 예심 청구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경성 지방 법원 인천 지청 조선총독부 검사 하촌정수(河村靜水)였고, 제출처는 경성 지방 법원 예심과(豫審掛)였다.²¹⁾ 그 예심 청구서 앞부분에 이인식을 포함한 손병희 등 266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 바로 그 앞에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른바 이들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3·1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었다. 제일 앞에 이승훈, 최남선, 이갑성 등이, 중간 부분에 학생 대표였던 강기덕 등과 함께 이인식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예심청구서에는 이들의 이른바 죄의 실상이 기록되어 있다. 곧, 3·1 운동 당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인식의 개인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인식의 3·1 운동 당시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경성 지방 법원 예심과 판사의 이인식에 대한 신문 기록이다. 앞의 예심 청구서에 따라 앞서 언급한 266명 각각에 대한 예심과 판사의 신문이 진행되었다. 이인식에 대한 신문은 1919년 4월 19일에 경성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신문자는 예심과 직무대리 조선총독부 판사 굴직희(堀直喜)였다.²²⁾ 이 신문에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인식은 먼저 자신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적지와 출생지, 신분, 가족, 친구, 현재의 생활, 종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곧, “성명은 이인식, 연령은 18세, 생년월일은 10월 12일 생, 직업은 보성 고등보통학교 학생, 주소는 경성부 제동 38번지 김중원방, 본적지와 출생지는 전라북도 옥구군 임피면 읍내리, 현재 보성 고등보통학교 3학년생, 동급생은 66명, 급장은 이태영과 백범기 등 2명, 동숙인은 중앙학교의 이병관, 채만식, 강성진, 김갑수, 휘문고 등보통학교의 김성록, 조남승 등과 3·4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학생, 아버지는 약 30만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학비로 매월 20원씩 송금해 주고 있는 이태하,²³⁾ 형제는 형 1명²⁴⁾과 누이 2명, 종교는 유교”라는 것 등이었다.

21)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국사편찬위원회, 권15,三一運動 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國漢文), 孫秉熙 外 266인 豫審請求書.

22)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5,三一運動 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豫審調書)(國漢文), 李仁植 신문 조서(1919년 4월 19일 경성지방법원 豫審掛에서 判事 堀直喜의 신문).

23) 참고로 3·1운동으로 체포된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박쾌인(朴快仁)은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면이었으며, 현동림(玄東林)의 집(송현동 56번지의 3)에서 하숙

이어서 3·1 만세 운동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답변하였다. 곧, “2월 25·26일 경에 조선에서 독립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 일반의 소문에 의하여 알았으나 그 일시와 장소는 몰랐다는 것, 3월 1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후 1시 반 경 안국동을 지날 때 보성 전문학교 최동명(崔東明)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선언 발표가 있으니 가보라고 해서, 일단 하숙으로 돌아갔다가 파고다 공원에 가려고 혼자 하숙을 나와 인사동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토지 조사하는 데서 일을 보고 있다는 장채극(張彩極)을 만났으며, 장채극이 독립 선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독립신문 9매와 선언서를 배부하라고 하여 인사동 네 집의 미곡상에 배달했다는 것, 선언서 등을 배부하고 파고다 공원으로 가니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공원에서 나오고 있어서 자신도 군중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며 종로로 나와서 남대문 근처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군중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만세를 부르면서 돌아다닌 것은 독립을 희망해서였다는 것, 다음날 2일 하숙 집에서 이병관과 김갑수의 말을 들으니 그들도 3월 1일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 3월 5일 남대문 역에서 독립 운동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나(이것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장 때문에 고향에서 와 있던 친척을 전송하기 위하여 오전 8시 40분 남대문 역에 갔는데 그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부르므로 자신도 그것에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다는 것, 그때 누군가가 군중 속에서 붉은 천을 살포했으므로 자신도 하나를 주어 만세를 불렀다는 것, 군중이 남대문 쪽을 향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나아갔으므로 자신도 거기에 끼어 남대문 근처에까지 가니 경찰들이 나타나 군중을 제지하였다는 것, 군중 일부가 또 행진하여 북미창정(北米倉町) 앞 입구 근처에까지 가서 해산하자 거기에서 하숙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등이었다.

1919년 4월 19일 경성 지방 법원 예심회에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인식은, 3·1 만세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2월 25·6일 경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시와 장소는 몰랐다고, 3월 1일에 우연히 장채극을 만나서 독립신문과 선언서를 받아 배부하였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곧, 자신의 3·1 만세 운동 참여를 우연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이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

하고 있었는데, 재판정에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고향의 아버지로부터 학비로 월 15원 정도 송금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6,三一運動 V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朴快仁 신문조서(1919년 8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 예심회에서 판사 堀直喜의 신문).

24) 이인식은 3남 2녀 중 막내아들이었는데, 그의 중형 이관식이 191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인식이 신문을 당할 때 그의 형제는 2남 2녀였다.

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자신과 연관된 독립 운동을 한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것은 이인식이 장채극이 토지 조사하는 데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돌려 대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장채극은 당시 보성 고등보통학교 4학년 학생으로 3·1 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철(李鐵) 등과 함께 보성 고등보통학교의 총 책임자였는데, 그러한 장채극을 3·1 만세 운동 당시 이인식이 자세히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재판정에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자신이 한 행동을 축소하여 말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앞서와 같이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인식이 자신과 같이 하숙을 하고 있는 이병관과 김갑수가 3월 1일 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병관과 김갑수가 재판정에서 판사의 신문에 대해 3월 1일 만세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병관과 김갑수에 대한 경성 지방 법원 예심과 판사의 신문이 1919년 6월 12일에 있었는데, 이날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병관은 3월 1일 만세 운동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하숙 집에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김갑수는 이날 장모 최씨가 국장을 구경하기 위하여 중앙동 심상일의 집에 와 있었으므로, 그곳에 놀러가서 종일토록 있었다고 답변하였다.²⁵⁾ 또한 이날 답변에서 이병관은, 이인식이 3월 5일에 남대문 역에서 만세 운동이 있으니 자신에게 참가하라고 권유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앞서와 같이 이인식이 3월 5일 남대문 역 만세 운동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것도 그 예이다.

이인식 등 3·1 만세 운동 관련자 273명에 대한 구의견서(求意見書)가 1919년 8월 29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에 의해 작성되어, 경성 지방 법원 검사국 조선총독부 검사 경장삼랑(境長三郎)에게 발송되었다. 그것은 1919년 3월 25일에 예심이 청구된 지 5개월여 만이었다. 구의견서의 내용은 ‘이들(273명)에 대한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예심을 마친 바 달리 취조를 요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어 형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해 의견을 구하고자 일건 기록을 송치한다.’는 것이었다.²⁶⁾ 이어서 그 이튿날인 8월 30일에 3·1 만세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예심 종결 결정서가 경

25)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7,三一運動 VI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李炳寬 신문조서 및 金甲洙 신문 조서(1919년 6월 12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의 판사 堀直喜의 신문).

26)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권16,三一運動 VI,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求意見書.

성 지방 법원 예심계 판사 굴직희(掘直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심의 종결이 결정됨으로써 이들은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회부된 서울 독립만세 운동 참가자는 248명이었다. 앞의 248명은 김형기를 포함한 210명, 이계창을 포함한 30명, 윤익선을 포함한 8명 등 세 부류로 각각 나누어져 회부되었다. 이인식은 김형기를 포함한 210명 내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죄목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이었다. 이들을 공판에 회부한 이유가 당시 작성된 문서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 이인식과 관련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곧, ‘피고 이인식이 파고다 공원에서 피고 장채극에게서 독립선언서 약 10매를 수령하여 동 시각에 같은 장소 같은 부근에 배포하고 (각 피고도) 동일 오후 2시 경에 파고다 공원에 모두 모였다.’와, ‘피고 장채극, 피고 전옥영, 피고 이철은 공모하여. 갑. 3월 1일 타인에게서 조선독립신문 2백매를 수령하여 동일 피고 이인식 외 수십 명을 시켜 송현동, 간동, 안국동, 인사동 방면에 배포하게 하고…’였다. 곧, 이인식이 3월 1일에 장채극에게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수령하여 군중들에게 배포하였고, 이후 독립신문을 수취하여 송현동, 간동, 안국동, 인사동 방면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본심에서의 이인식에 대한 신문은 1919년 10월 21일에 경성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신문자는 조선총독부 판사 진중방춘(田中芳春)이었다.²⁷⁾ 이날 판사의 신문에 대해 이인식은, ‘3월 1일 오후 1시경 최재명(崔在明)에게서 당일 오후 2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 선언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인사동 노상에서 장채극을 만나 독립선언서 열 장 정도를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동 쌀집 네 집에 배포했다는 것, 이후 파고다 공원으로 가서 수만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고 종로로 나오는데 가담하여 남대문까지 독립 만세를 부르며 갔다는 것, 3월 1일 오후 7·8시 경에 이철에게서 독립신문 7·8장을 받아 모두 인사동 민가에 투입했다는 것, 3월 5일 국장 때문에 서울에 온 친족을 전송하기 위해서 8시 40분 경에 남대문 역으로 갔는데 수백 명의 군중이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어 참여했다는 것, 당시 맑고 붉은 천을 던진 사람이 있어 주어서 흔들었다는 것’ 등을 답변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예심에서의 판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거의 유사하나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그것은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오후 하고 길에 인사동 노상에서 장채극에게서 받아 배부하였다는 것과, 독립신문을 당일 오후 7·8시 경에 이철에게서 받아 배부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인식을 포함한 서울 독립 만세 운동 관련자 24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27) 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8권三一運動 VII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公判始末書(國漢文), 공판시말서.

1919년 11월 6일에 있었다. 이날 공판장의 분위기와 공판 결과에 대해서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무후무한 대판결-이백사십 명을 한 번에 언도해, 피고 대부분은 모조리 학생-」 손병희의 조선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삼월 일일부터 오 일까지 경성 기타 각지에서 소요를 일으키어 국헌을 문란케 한 불영 학생의 일과 이백 사십 이 명에게 대하여 육일 오전 구시 반부터 경성 지방법원 제 칠호 법정에서 판결언도를 하였는데, 오전 아홉 시에 구속 중인 피고들이 감옥에서 혹은 자동차로 혹은 마차로 제 칠호 법정에 차례로 도착함에, 방청석에는 미국 사람과 조선 사람 약 삼십 명이 착석하고 서대문 감옥 대야 간수장(大野 看守長)이하 경관 등이 엄중히 늘어진 즉, 전중 재판장(田中 裁判長)이하 관계관이 출정하여 곧 개정하였다. 전중 부장은 피고 일부분씩을 불러내어서 통역을 시켜 피고인의 죄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친구법률에 비추어 관후한 선고를 하였다. 먼저 구속당한 자 일백십 명 전부에게 언도를 마치기는 오후 두 시인데 언도를 받은 피고들에게 다시 고량이 채워졌고, 그들은 감옥으로 초연히 돌아갔다. 법원 구내에 오늘 판결이 어떻게 될까하고 근심하는 빛으로 피고를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늘어서 와글와글 하는 피고들의 부모 형제 처자들이 산같이 모여 섰고, 경관들은 말소리도 크게 하지 아니하고 경계가 매우 엄엄하였다. 신개 종로서장도 낮때 쫓하여 와서 한번 휘둘러 갔다. 오후 두시 반에 다시 보석 중인 피고 일백 사십 이 명에 대하여 전과 같이 판결 언도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많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에 판결 언도를 하기는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고, 참으로 전에 없던 일이니 일본에서도 이러한 큰 판결은 없었다. 당일의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⁸⁾

앞의 기사 제목에서는 240명을 한 번에 선고했다고 했으나, 기사 본문에서는 구속자가 110명, 보석 중인 자 142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곧, 당시 공판 받은 인원이 제목과 본문에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형량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아래 <표 1>과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는 모두 237명으로 역시 앞서의 숫자와 약간 다르다.

28) 신문 기사는 고어체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대어로 바꾸었다(『매일신보』, 1919년 11월 8일 자).

〈표 1〉 『매일신보』 1919년 11월 6일 자의 삼일 운동 관련자 공판 결과 (총 237명)

형량	인원	형량	인원
징역 3년	2명	징역 10월	13명
징역 2년	3명	징역 8월	18명
징역 1년 6월	4명	징역 7월	32명
징역 1년 2월	4명	징역 6월	140명
징역 1년	18명	무죄	3명

앞의 자료에서 이날 재판이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재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3·1 운동이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려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경계가 삼엄하다고 표현하여 이날 공판을 일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앞의 기사에 의하면, 이인식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7월형을, 그리고 이인식과 같이 하숙하였던 이병관과 김갑수는 각각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상에서 3·1 운동 당시 이인식의 역할과 활동, 체포 및 재판 과정 및 형량 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일제에 의해서 작성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기록에,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이인식의 의도로 그의 활동이 어느 정도 축소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 이인식의 활동에 대한, 앞서의 기록에서 알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수록된 기록이 있다. 그것은 해방 이후에 국가보훈청에서 작성한 「유공자 정보 기록」이다. 「유공자 정보 기록」은 1962년에 이인식이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을 때 작성된 것이다. 그 공적 개요 중에 3·1 운동 활동 기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이인식이 3·1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미국 영사관과의 연락책임을 지는 한편 전북 학생 대표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10개월 간 복역하였다.’²⁹⁾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앞의 공적 개요 내용 중에 이인식이 미국 대사관과 연락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의 기록 내용이 이인식 생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의 기억에 따른 진술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인식이 살아 있을 때 발행 된 1962년

29) ‘19歳の 少年으로 己未 3·1運動에 參加 美國領事館과의 連絡責任을 지는 한편 全北學生代表로 活躍하다가 逮捕되어 西大門監獄에서 10個月 服役.’(『유공자 정보 기록』, 국가보훈청, 관리 번호 7062, 李仁植, 공적 개요 1).

2월자의 『동아일보』 기사에도 그가 ‘3·1 운동 당시…미국 영사관과의 연락책임을 지는 한편, 전북 학생 대표로 활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⁰⁾ 그런데 이인식이 10개월 간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천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앞의 『매일신보』 기사에 그가 징역 7형을 선고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의 재판기록에는 징역 7월, 미결 구류 일수 90일 산입,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³¹⁾

2) 임정에 독립 자금 기부

3·1 운동이 있는 이듬해인 1920년 8월에 이인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당시로서는 거금 8천원³²⁾을 독립 자금으로 기부하였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이렇다. 곧, 이인식이 종로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또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조달하다가 붙잡혀 온 이원형(李源亨)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 복역 후 1920년에 이인식은 자신의 아버지 이태하에게 상속 받은 재산 246,474평(대지 4,646평, 논 223,161평, 밭 18,667평)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8천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기부하였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인식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였는가, 아니면 아버지 재산 일부를 기부하였는가가 의문이다. 그리고 기부한 곳이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는가, 아니면 만주였는가, 만주라면 만주 내 어느 곳이였는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상해 임시정부 청사라

30) 『동아일보』, 1962년 2월 8일 자.

31) 국가기록원, 독립운동판결문. 한편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명단인 『西大門監獄在監人名單』 267명 중에 이인식이 포함되어 있다(앞의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5권, 三一運動 V,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 調書(豫審調書)(日文), 『西大門監獄在監人名單』).

32)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1911년 석당 5엔 60전이던 쌀값은 1920년 16엔 23전으로,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이 진행 중이던 1925년에는 19엔 26전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농업 공황의 영향으로 1930년에는 10엔 14전, 그리고 1931년에는 6엔 61전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한다(김윤희, 『쌀의 일본 유출과 쌀값의 변동』, 『한국문화사』 권26, 4장, 2절, 2항 내,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09). 1석은 144킬로그램이므로, 8천원은 80킬로그램을 한 가마로 계상하면 약 887가마가 된다. 이인식의 장손 이일곤은 1995년 한국감정원 대전 부지점장으로 있을 때 1920년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매각한 246,474평의 토지를 1995년 6월 시점으로 가격을 환산한 결과 총 금액이 4,736,353,400원이었다고 한다(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9, 138~143쪽). 한편 1962년 2월 8일 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이 2원이었다고 한다(다음 주 35)를 참고하기 바람).

는 설, 만주 내에서도 단동 또는 심양이라는 설 등이 있었다.

독립 자금을 기부한 1920년에 이인식의 나이는 19세였다. 그 나이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을까 의문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재산 상속은 부모 생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부모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 작성된 재산 상속 문서를 ‘구처문서(區處文書)’라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화회문서(和會文書)’라고 하였다.³³⁾ 이러한 관행은 3·1 운동 당시에도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독립 자금을 헌납한 1920년은 이인식이 혼인한 지 햇수로 5년째 되는 해였고, 이인식의 아버지 이태하가 당시로서는 나이가 많은 편인 60세였으며, 이인식의 중형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때였으므로, 이태하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미 상속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이인식의 유공자 정보의 공적 개요 란에는 이인식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방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곧, 이인식이 ‘1920년 8월에 전 재산을 방매하여 만주로 가서 임정 요인들에게 8천원을 수교(手交)하고 임시정부 건국공채 8매를 받았다.’³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 조서의 기록은 이인식 생전에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이인식의 기억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다른 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앞서의 기록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앞의 공적 개요에 의하면, 이인식이 상해 임시정부 요원에게 독립 자금을 기부한 곳이 당시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상해가 아니라, 만주였다고 한다. 이 또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만주 어디였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하여, 1962년 2월의 『동아일보』 기사에는 만주 봉황성(현재의 선양, 예전의 심양)으로 기록되어 있고,³⁵⁾ 1963년 7월의 『경향신문』에는 만주 안동(安東, 현재

33) 특별히 재산을 지급한 별급문서(別給文書)도 있었다. 별급은 자손의 과거 합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다.

34) 『유공자 정보 기록』, 관리 번호 7062, 이인식(李仁植), 공적 개요 2, ‘1920. 8. 全財産을 放賣하여 滿洲로 가서 臨政要人들에게 八千圓을 手交 臨時政府建國公債 八枚를 받음.’

35) 『동아일보』, 1962년 2월 8일 자. 『동아일보』에 수록된 이인식이 독립 자금을 헌납하는 과정에 대한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곧, ‘이인식은 종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군자금 모집의 비밀 사명을 가진 이원형을 만났다. 감옥에서 나온 이인식은 고향으로 내려와 땅을 팔기도 하고 전당을 잡히기도 하여 9천원(당시 쌀 1 가마 2원)을 구해 서울로 올라가 이원형을 만났다. 이원형이 “신의주에 가서 올림픽 마크를 가진 옛장수를 만나라.”라고 하자, 친척 한 사람과 함께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차를 타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는 걸어서 갔으며, 마침내 신의주에 1920년 8월에 도착하였다. 신의주에서 사흘 만에 올림픽 마크를 한 옛장수 한 사람을 만난 이인식은 그에게 “이원형씨를 아느냐?”고 묻자, 그는 이튿날 아침 압록강 상류 버드나무 밑으로 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이인식이 그곳으로 가니, 옛장수는 대뜸 옛판 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이인식을 위협하였다. 이인식이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니, 옛장수는 동지를 만났

의 단동)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⁶⁾ 그러나 앞의 『동아일보』 기사가 『경향신문』 기사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앞의 『동아일보』 기사는 이인식이 살아 있을 때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구술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지만, 『경향신문』 기사는 그가 사망한 후 4개월 여 만에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닌 그의 가족의 구술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의 『동아일보』에는 이인식이 독립 자금을 헌납하게 된 계기가 된 이원형이라는 독립투사를 만난 곳이 서대문 형무소가 아닌, 종로경찰서 유치장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시 『동아일보』 기사가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한다.³⁷⁾ 참고로 이인식이 받은 공채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이인식과 그 시대』에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옮긴 것이 아래 <표 2>이다.

<표 2> 이인식이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 공채 내용

第七六號 一金 阡圓 此는 大韓民國 貳年參月貳 十日 總統府令 第拾壹號 를 遵奉하여 公債去來에 無制限으로 發行하다. 大韓民國 貳年十月九日 大韓民國臨時假政府國務院卿 兼任財務局 總裁 李承晩 (인) 財務總長 許永完 (인)

다고 받았다. 옛장수의 안내를 받아 밀선을 타고 만주 심양에 가서 임시 정부 요원들에게 8천원을 건넸더니, 무기명으로 된 1천 원짜리 공채 5매와 기명으로 된 공채 3매를 주었다. 무기명으로 된 것은 이인식이 허리띠를 갈라 그 안에 넣고 꿰매어 가지고 오고, 기명으로 된 것은 친척이 중국 가족인 밀창 안에 넣고 꿰매어 가지고 귀국하다가, 경찰의 감시가 심하여 신과 함께 버렸다. 이인식이 가지고 온 것만 조그만 병속에 넣어 자기 집 뒷산에 있는 조부 산소 옆에 파묻어 두었다. 해방 후 산소 옆을 파 공채를 찾아내어, 4·19 직전에 그 중 1매를 서울신문사로 가져갔다가 화재통에 타 없어지고 현재 2매만 남아 있다.』라고. 한편 이인식의 둘째 자부 전창린은 이인식에게 직접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옛판에 있는 마크가 올림픽 마크가 아니라 북두칠성 별 표 마크였으며, 공채 8장은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모두 무기명으로 된 것이었다고 한다(2017년 11월 21일 증언).

36) 『경향신문』, 1963년 7월 20일 자.

37) 다만 1천 원짜리 애국 공채 8매 중 무기명으로 된 것 5매와 기명으로 된 나머지 3매를 지니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기사가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경향신문』 기사에는 기명으로 된 5매는 이인식의 동행인이, 무기명으로 된 3매는 이인식이 각각 지녔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인식과 그 동행인이 이인식의 임피 집으로 가져온 애국 공채는 무기명으로 된 1천원 권 3매였기 때문이다.

3) 일본에서의 금우회 활동

독립 자금을 기부하고 나서 1923년에 이인식은 일본 동양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입학하였다고 한다.³⁸⁾ 그리고 동양 대학 재학 시절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동경에서 금우회(錦友會)를 조직하여 월보 등을 발간하면서 항일운동 거사를 도모하다가 일경에게 발각되어 일부가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³⁹⁾ 여기에서 이인식이 일본 동양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어떠한 목적으로 입학하였는가, 금우회라는 단체가 실제로 있었는가, 있었다면 과연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과연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는가 라는 등의 의문이 떠오른다.

먼저 이인식이 일본 동양 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이다.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쓰여 있는 자료를 현재까지 발굴하지 못하였다. 다만 다음 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1923년에 그가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에 작성하여 실은 「夏期休暇에 際하여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이다. 앞의 글의 내용 중에 관련 부분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쉴쉴한 고향산천은 기능 많은 새로운 역군들을 기대한 지 오래였고, 병든 여러 부모형제들은 새로운 의사에게 진찰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어찌 동무들이 명심할 바가 아니며, 간절히 느낄만한 바가 아니리오...머리를 들어 황폐한 고향 전야(田野)를 볼 때에 푸릇한 움과 싹은 하나도 없고 우수수 떨어지는 황엽뿐이니, 동무들이여! 애답고 슬픔이 약한 정에 간절할 것이로다...우리가 유교의 개인적인 중용 사상을 동경한 지 몇 백 년이며, 양반의 독존 사상을 호흡한 지가 오랜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궤도를 밟아가고 있으니 슬프다...동무야! 구하자, 크게 구하자. 널리

38) 이인식이 동양대학에 입학한 년도가 『이인식과 그 시대』 2판(2015)에는 1923년으로, 『이인식과 그 시대』 3판(2019)에는 1921년으로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인식은 1923년 1월 3일에 있는 임피공립보통학교동창회 제10회 정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해 8월에 있는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 제작에 적극 참여하였다(『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 등사본, 군산 동국사 소장, 1913). 따라서 이인식이 동양대학에 입학한 연도는 1921년보다는 1923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을 동창회장으로 선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9) 앞의 『이병기 전창련의 산책』, 전창련, 2016,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연보』.

(구)하자. 산에도 가서 구하고, 바다에도 가서 구하자. 원수에게도 구하고, 은인에게도 구하자....」⁴⁰⁾

위에 제시된 글의 내용과 같이, 이인식은 자신의 고향 산천이 ‘푸릇한 움과 짙은 하나도 없고 우수수 떨어지는 황엽뿐’이라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 글을 쓴 날이 7월 15일임에도 그렇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당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이인식은 유교 사상과 양반의 독존 사상이 우리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였는데 아직도 그 궤도를 밟아가고 있는 당시 실정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1923년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던 유교 사상과 양반 중심의 신분 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인식은 원수에게도 구하자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앞의 글에서 이인식은 톨스토이, 그리스 철학자, 영국의 작가 스마일스 등의 말을 인용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과 라일강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 등의 역사와,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의 경륜 및 공자와 석가의 인격 등을 사례로 들어서 하기 휴가 때 공부하러 갔던 동지들에게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이인식이 일본 동양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입학한 동기를, 그가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양반 중심의 유교 사상으로는 국가의 운명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사상을 습득하기 위해 원수에게도 배우기 위해서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동경에서의 이인식의 활동 중에 이인식이 금우회 회원으로서 『錦友會月報』를 간행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1924년 5월에 조선총독부 경무국 동경 출장원이 만든 『在京朝鮮人狀況』이라는 문서이다.⁴¹⁾ 앞의 문서가 작성된 날은 1924년 5월 31일이었고, 문서 작성자는 조선총독부 사무관 고교탁사랑(高橋卓四郎)이었으며, 그는 이 문서를 조선총독부 아세아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⁴²⁾ 곧, 조선총

40) 이인식, 『夏期休暇에 際하여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 앞의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 등사본, 군산 동국사 소장, 1913.

41) 『在京朝鮮人狀況』,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1』, 박경식, 1975.

42) 이 문서의 표지에 ‘大正十三年五月 『在京朝鮮人狀況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員』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大正十三年五月三十一日 / 朝鮮總督府事務官高橋 卓四郎 / 出渌亞細亞局長殿 / 一.在京朝鮮人狀況 一部 / 右御參考爲高覽ニ共候’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부 사무관이 동경에 출장을 가서 동경에 있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조사하여 조선총독부 아세아국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조사 목적은 동경에 있는 한국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과 한국인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 문서의 제일 첫머리에 1919년 말부터 1923년 말까지의 동경에 있었던 한국인과 한국인 유학생 수가 아래 <표 3>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통계가 일본 경시청의 통계임을 밝히고 있다. 곧, 일본 경시청에서 동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3>과 같이,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학생 수는 1919년부터 1922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급증하였지만, 1923년에는 오히려 이전 해보다 대폭 감소하였다. 곧, 1919년 말에 448명, 1920년 말에 988명, 1921년 말에 1,516명, 1922년 말에 1,950명이었는데, 1923년 말에는 53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감소한 이유는 그 해에 있었던 관동대지진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때 자경단이나 경찰관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한국인 노동자 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표 3> 1919~1923 동경 거주 한국인 현황

연도	인원	내역		
		학생	노동자	기타
1919(대정 8년) 말	1,246	448	766	34
1920(대정 9년) 말	2,120	988	1,065	67
1921(대정 10년) 말	3,234	1,516	1,623	95
1922(대정 11년) 말	4,631	1,950	1,543	138
1923(대정 12년) 말	3,374	531	2,694	122

앞의 『在京朝鮮人狀況』의 4절 『刊行物』 편에 기록된 간행물들⁴³⁾을 표로 나타낸 것이 아래 <표 4>이다. <표 4>와 같이 『在京朝鮮人狀況』에서 파악한 1924년 당시 동경 소재 한국인 간행물은 14개였다. 이들 간행물이 창간된 해는 1913년~1924년이었으나, 거의 대부분은 곧, 14개 중 2개를 제외한 12개는 1922~1924년이였다. 그리고 전체 14개 간행물 중에 13개는 이미 일본 경시청

43) 『在京朝鮮人狀況』은 표지를 포함하여 전부 104쪽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제목은 ‘一般情勢’이고, 2장은 ‘思想勞動運動’, 3장은 ‘社會事業’, 4장은 ‘參考事項’이다. 이인식과 금우회 관련 기록은 3장 ‘社會事業’의 4절 刊行物 편에 나온다.

에 의해 조사된 것이었고, 『勞動同盟』만 1924년에 추가로 조사된 것이었다. 이들 14개 중 11개는 출판법이나 신문지법에 의해서 일제로부터 일단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3개는 그렇지 않았다. 이인식이 발행한 『錦友會月報』는, 이상화(李相和, 1901~1943)의 『響影』, 박팽서의 『空虛』와 함께 출판법이나 신문지법에 의해 허락받지 않은 것이었고, 매월 1회 50부씩 등사되어 회원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앞의 자료를 통하여, 이인식이 일본 동양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금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고, 『錦友會月報』를 매월 50부씩 등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1924년 동경 거주 한국인 간행물(조선총독부 조사원 조사)⁴⁴⁾

구분	이름	언어	屈出種別	발행회수	발행인	발행부수	창간연월	적요
표	學支光	일어	出版法	연1회 이상 수시	李昌根	부정확	1913. 10	學友會機關紙
	文化新聞	한국어	新聞紙法	월2회, 15·말일	卞熙璫	500부	1923. 11	
	斥候隊	한국어	新聞紙法	월1회, 부정일	宋奉禹	약 1,000부	1923. 3	北星會機關紙
	民衆運動	한국어	新聞紙法	월1회, 不定日	徐相一	500부	1923. 3	黑友會準機關紙
	現社會	일본어	新聞紙法	월1회, 1일	朴烈	300부	1923. 7	黑友會機關紙
	自由生活	한국어	新聞紙法	월1회, 1일	李俊業	약 1,000부	1922. 6	螢雪會機關紙
	젊은이	한국어	出版法	월1회, 15일	崔義萬	1,000부	1917. 11	在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機關紙
	大同公論	일본어	新聞紙法	월1회, 1일	林漢洙	약 1,000부	1922. 4	자금 궁핍, 거의 폐간에 이름
	黃人時論	일본어	新聞紙法	월1회, 1일	李東和	1,000부	1923. 4	
	新光	일본어	新聞紙法	월1회, 1일	柳震杰	500부	1923. 4	1923. 7. 폐간
비고	錦友會月報	·	·	월1회	李仁植	50부	·	회원에게 배부
	響影	·	·	월1회	李相和	50부	·	회원에게 배부
	空虛	·	·	월1회	朴彭緒	50부	·	회원에게 배부
추가	勞動同盟	일본어	出版法	월1회, 1일	李憲	부정확	1924.	朝鮮勞動同盟會 機關紙

이인식의 금우회⁴⁵⁾에서 발간한 『錦友會月報』의 발행 부수가 적다는 이유만

44) <표 4>에서 구분 란의 ‘표’, ‘비고’, ‘추가’ 등은 각각 자료에서 제시한 표와 비교 그리고 추가한 내용을 말한다.

45) 이인식의 금우회가 1922년에 문화 선전을 표방하고 군산의 군산좌라는 극장에서 소인

으로, 『錦友會月報』라는 간행물의 영향력이 다른 간행물에 비해 미약했다거나, 동경에서의 이인식의 독립 운동이 다른 간행물의 발행인들의 그것보다 미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발행 부수가 많았던 간행물의 발행인 중에 박열 같은 독립 운동 업적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지만,⁴⁶⁾ 『錦友會月報』와 같이 발행 부수가 적었던 『響影』을 발간한,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이상화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인식과 그 시대』에 의하면, 이인식이 금우회를 조직하여 『錦友會月報』를 발간하면서 항일 운동 거사를 도모하다가 일경에게 발각되어 일부가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⁴⁷⁾ 그런데 앞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이인식이 금우회를 조직하고 『錦友會月報』를 발간한 것을 1924년 당시 일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그가 항일 운동 거사를 도모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는 기존의 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임피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

동양대학을 중퇴하고 나서 이후 8·15 광복 때까지 사이 시기의 이인식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한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에 이인식이 1926년 6·10만세 운동 당시 국내에 잠입하여 거사를 위해 활동하였고, 국내외에서 정보 수집, 군자금 조달 등을 위해 몰래 활동을 하였으며, 만주별판에서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해 젊음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그러나 1926년 6·10만세 운동 당시 이인식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언제 만주로 건너갔고 만주에서 어떠한 활동하였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필자가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로 보아 이 시기 이인식의 활동으로 분명한 것은 이인식이 1925년부터 1928년 말까지의 사이 시기에 국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국내에 머무르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 1929년 이후 어느 시기에 만주

극(素人劇)을 연출한 군산 출신 동경제학생 모임인 친睦금우회(親睦錦友會)와 동일한 단체인가는 의문이다(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학의 지형』, 군산대학교 도시인문센터, 2019, 106쪽)

46) <표 3>에서 특히 눈에 띄는 발행인이 두 명 있다. 그들은 간행물이 300부에 이르렀던 『現社會』를 발행한 박열(朴烈, 1902~1974)과, 『響影』을 발간한 이상화이다.

47)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5(2판) 및 2019(3판),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연보』

48)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9(3판), 168쪽.

목단강 지역으로 가서 독립 운동을 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인식이 1925년부터 1928년까지의 사이 시기에 국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의 첫 번째 근거로 그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시기에 임피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인식은 그의 처 조득과의 사이에서 2남을 두었다. 큰 아들 이병주(李炳注, 1926~1977)를 1926년 2월 6일에 출생하였고, 둘째 아들 이병기(李炳基)를 1928년 7월 17일에 출생하였다.⁴⁹⁾ 두 번째 근거로 기존의 연구에서 이인식이 1925년에 임피 지역의 중학기성발기회에서 회계를 맡았으며, 1927년에는 임피 지역 청년회의 혁신총회에서 경리를 보았다고 각각 언급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⁵⁰⁾ 세 번째 근거는 이 시기에 이인식이 임피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기록된 다음 두 신문 기사를 들 수 있다. 하나는 1928년 8월 27일의 『中外日報』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가뭄이 연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피 지역에서 의연히 야학을 펼치고 있었던 이동식(李東植)에게 이인식이 의연금으로 매월 2원씩 보냈다고 한다.⁵¹⁾ 다른 하나는 1928년 11월 24일의 『中外日報』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임피 보통학교가 개교 이래 학생들이 사용할 교육 용품이 충실하지 못하여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지방 유지들이 교육용품을 기증하였고 이에 학교나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는데, 이 때 이인식이 소년악대(少年樂隊) 1조(組)를 기증하였다고 한다.⁵²⁾

49) 앞의 주 6)과 같음.

50) 이경란, 앞의 논문, 2006, 510쪽, 502쪽.

51) 『1928년 가뭄은 5백 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라고 노인 농부들이 말할 정도였다. 그러한 가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임피농민연합회에서 경영하는 농민야학원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임피 지방에 거주하는 이동식의 열성으로 야학이 시작되었는데, 올해에도 가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야학원 학생은 남녀 60여 명이 있으나 한 푼의 수업료도 받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동식의 열성에 감응하여 지방 인사들이 자진하여 매월 의연금을 제공하였다. 당시 무료로 가르쳐 준 사람은 이동식, 김용신, 이능환, 채사석 등이었고, 의연금을 낸 사람은 (매월) 이완식 5원, 이동석 3원, 강중현·강방현 각 3원, 이동호·강우현·이인식 각 2원, 이동래 1원이었다.』(『中外日報』, 1928년 8월 27일 자, 『旱魃도 不拘 夜學依然繼續 李東植氏 教育熱』).

52) 이인식 외에 조영완은 회선탑(迴旋塔, 높은 기층의 꼭대기에 여러 개의 쇠줄을 드리워 빙빙 돌 수 있게 만든 탑)과 회(迴)시메 각 1개를, 채상철은 주(舟)시메 1개를, 김용석은 철봉 2개를, 강영소는 메-도로-무 1개를 각각 기증하였다(『中外日報』, 1928년 11월 24일 자, 『臨陂普校에 教育用備品 寄贈』).

5. 만주 목단강에서의 독립 운동

1920년 대 후반 고향 임피에서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한 이인식이 이후 어느 시기에 만주로 이주하였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또한 만주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인식이 만주로 간 시기가 1929년 이후의 어느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1928년 말까지 이인식이 임피에서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그 언젠가 이인식은 만주로 건너갔다. 만주에 간 이인식은 목단강 유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남모르게 정보 수집, 군자금 조달 등의 독립 운동을 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인식이 만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독립 운동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현재로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인식이 목단강 유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인식의 둘째 아들 이병기가 12세 때인 1940년에 임피 보통학교를 29회로 졸업하고,⁵³⁾ 만주 목단강 유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으며,⁵⁴⁾ 이후 목단강 고려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인식은 가끔 기숙사로 찾아가서 둘째 아들 이병기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건네주곤 하였다고 한다.⁵⁵⁾

이인식이 만주에서 독립 운동을 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근거를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고 것을 방증할만한 사실이 두 개 있다. 하나는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인 이갑성(1886~1981)이 이인식의 묘비명에 ‘滿洲 땅에 뿌린 靑春 祖國 光復 거름되어’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이다.⁵⁶⁾ 이갑성은 3·1 운동 민족 대표로서 체포되어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1926년에 신간회 사건으로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 운동을 하였다. 1938년에 귀국한 뒤 흥업구락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53) 앞의 『개교 100주년 임피초등학교 100년사』, 2006, 143쪽.

54) 이인식의 처 가림 조씨는 둘째 아들 이병기조차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13세(만 12세)된 아들을 만주에 있는 이인식에게 보내야만 하였다. 이병기가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병기의 처 전창련의 자서전에 자세하게 나온다(앞의 『이병기 전창련의 산책』, 전창련, 2016.).

55) 앞의 『이병기 전창련의 산책』, 전창련, 2016, 68~69쪽.

56) 이갑성이 지은 이인식의 묘비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生涯 바쳐 抗日鬪爭 모진 獄苦 다 겪으며 祖國獨立 爭取 爲해 私財巨金 獻納했네 滿洲 땅에 뿌린 靑春 祖國光復 거름되어 情念成就 還國해도 稱功榮譽 辭讓했네 後世教育 筆生獻身 남은 情熱 다 바치니 오! 春臯여 春臯 선생이여 丁寧 그대는 겨레의 스승이로세 研堂 李甲成』;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4, 373쪽).

1940년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7개월 간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러한 이갑성이 이인식의 만주에서의 활동이 조국 광복의 거름이 되었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인식의 처가 일제 강점기 말기에 이인식이 집에 없을 때 일제 경찰에게 자주 불려가 고문을 받았다고 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식의 둘째 자부 전창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남편 이병기가 해방이 되고 나서) 고향집에 돌아와서 보니 남편(이병기)이 없는 사이에도, 시어머님은 일본 순사들의 감시와 문초로 모진 고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⁵⁷⁾라고 기록하였다.

6. 삶에 대한 자세

이인식은 3·1 운동에 학생 대표로 참여한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줄곧 조국의 독립 운동에 일생을 헌신하였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든다. 그것은 그가 삶에 대해 어떠한 사고 또는 자세를 가졌기에 과연 그러한 삶을 영위하였는가 라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자료는 현재 발굴되지 않았다. 그가 지은 저서가 있었다고 하나 전하여 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 편린을 알아낼 수 있는 자료는 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1923년에 그가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에 작성하여 실은 『夏期休暇에 際하여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라는 그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이인식은 하기 휴가 때에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 “노력하라 곧, 구하라”라는 말을 수십 차례 거듭 거듭 강조하였다. 그 예로 앞의 글에서 그 일부를 발췌하여 아래에 제시하겠다.

『동무야! 우지마라. 겁 내지 말고 슬피하지 마라. 구(求)하는 자에게는 치료할 수 있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음이 있나니, 영웅의 역사가 구(求)함의 역사가 아니며, 철인(哲人)의 역사가 노력함의 역사가 아닌가. 구함이 많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근거가 있으며, 구함이 많은 나라는 강하고 부(富)한 나라이며, 인생은 구함으로 살고, 세계도 구함으로 성립되고, 우주도 구함으로 무궁할 것이요, 학문도 문명도 모두 구함으로 인함이니, 구함은 아마 생물의 본능인가 보다...구함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많고, 구함이 적을수록 불행이 많은 것이다. 구할수록 나의 가치가 한 층 더하고 나의 중량이 더 무거워 지는 것이니, 스마일

57) 앞의 『이병기 전창린의 산책』, 전창린, 2016.

스 선생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참으로 하늘인들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동무야, 쾌남야, 건아야.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구하고 노력하자. 널리 구하자. 크게 노력하자. 7월 15일 옥동(임피)에서.」⁵⁸⁾

앞의 글은 이인식이 3·1 운동에 참여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헌납한 지 2년여 만인 그의 나이 22세 때에 작성한 것이다. 부단한 노력을 강조한 젊은 시절의 이인식의 삶에 대한 이러한 사고 또는 자세는 아마도 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겠다. 첫째는 그가 해방 이후 임피 중학교 교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학생들에게 훈화할 때 인내와 노력을 자주 강조하곤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운명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내와 노력에 의해서 개척되고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언제나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갖고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 배우고 연구하여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⁵⁹⁾ 둘째는 그가 어느 한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에서 ‘행복과 부귀 중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인내, 역경 속에 성공이 있다.’고 충고한 사실이다.⁶⁰⁾ 셋째는 그가 자신의 큰 자부에게, 인생이란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자주 말할 정도로⁶¹⁾ 인내와 노력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인식이 이토록 그의 평생을 통하여 말과 글에서 인내와 노력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인내와 노력이 그의 삶에 그대로 배어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말과 글만이 아닌 행동이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이인식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인내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그의 삶의 목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필자는 일제 강점기의 이인식의 삶의

58) 이인식, 『夏期休暇에 際하여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 앞의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 1913.

59) “…“努力은 天才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綿密한 人生設計는 各自의 運命을 創造할 수 있는 것이다. 先天的으로 주어진 運命이 아니라, 各自의 努力에 의하여 創造되는 것이 運命이라는 것을 念頭에 두고, 各自의 生活을 誠實하게 實踐하여야 한다. 人間이 自然과 區別되는 것은 自己의 意志에 依하여 運命을 創造하고, 開拓해 나가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굳은 信念과 意志를 갖고 遠大한 抱負와 理想實現을 爲하여 힘써 배우고 研究하여 來日의 꿈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앞의 『臨中五十年史』, 1999, 56쪽, 『李仁植 教長先生님이 학생들에게 強調하던 訓話中에서-梁弼永 前任教師가 제공한 자료-』 중에서).

60)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9, 400쪽, 『김명배 군에게 보낸 친필 서한』.

61)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4, 127쪽.

목적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인식이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각종 독립운동에 줄곧 인내하면서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나라에서 그에게 노후인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고, 사후인 1974년 10월 17일에 유해를 동작동 국립 서울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151호에 안장하여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해방이후의 이인식의 삶의 목적은 조국 발전의 동량이 되는 영재들을 육성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해방이후에 이인식은 임피 중학교 교장으로 1953년부터 1962년까지 햇수로 10년 간 재임하면서 가난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나라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줄곧 인내하며 노력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이다.⁶²⁾ 그 결과, 이인식의 제자들은 국가보훈처 등의 후원을 받으며 2005년 10월 1일에 군산 월명 공원 일제강점기 일제의 신사 터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였고, 2014년에는 그를 기리는 추모집 『이인식과 그 시대』라는 책자를 간행하였다.⁶³⁾

7. 맺음말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인식의 독립 운동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전거를 대지 않은 채 언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 결과 중에 서로 어긋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인식의 독립 운동 사실들을 사료에서 찾아내어 전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독립 운동 사실들도 찾아내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의 가문, 혼인, 삶에 대한 자세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찾아내어 언급하였다.

본고에서 이인식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 전거를 대며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당시 그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3·1운동이 시작된 3월 1일 오전에 이인식은 보성중학교 중간 책임자로서 독립선언서를 민가에 배포하였고, 탑골 공원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며 남대문까지 행진할 때 미국 영사관과의 연락책임을 맡았고, 그날 밤에 독립신문을 민가에 배포하였으며, 3월 5일에 남대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전북 학생 대표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해 11월에 이인식은 공판에서 ‘징역 7월, 미결 구류 일수 90일 산입,

62) 이인식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63) 앞의 『이인식과 그 시대』, 2014, 135~151쪽.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3월 5일 밤 11경에 서울 송현동 62번지 자신의 집에서 동경 유학생 및 서울 시내 학생 63명과 함께 향후 독립 만세 운동을 비밀리에 숙의하던 중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기존의 설에서, 이인식이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이인식이 서울 제동 38번지 김종원의 집에서 하숙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송현동 62번지 이인식의 집은 본고의 주인공 이인식의 집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월 5일 밤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된 앞의 63명 안에 이인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가능성만은 열어 두기로 하였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 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인식은 3·1 운동이 있은 직후 종로서 유치장 안에서 임시정부 요원 이원형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금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듬해 1920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들을 매각하여 거금 8천원을 가지고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만주에까지 가서 임시정부 요원에게 기부하고 1천원 권 8매의 애국 공채를 받았으나 그 중에 2매만 현재 남아 있다. 셋째, 일본에서의 금우회 활동에 대한 것이다. 1923년에 이인식은 일본 동양대학 인도지나 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동경에서 금우회를 조직하고 『鎬友會月報』를 발간하여 매월 1회 약 50부 정도를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이러한 이인식의 활동은 1924년에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넷째, 임피 거주 및 실력 양성 운동 참여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인식은 그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1926년 2월과 1928년 7월에 낳은 것으로 보아, 1925년 무렵부터 1928년까지의 사이 시기에 임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 시기인 1928년에 이인식은 두 차례의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 하였다. 1928년 8월에 이인식은 임피 지역 야학에 의연금을 월 2원씩 기부하였고, 그해 11월에 임피 보통학교에 소년 악대 1조를 기부하였다. 다섯째, 만주 목단강 유역에서의 독립 운동에 대한 것이다. 1929년 이후 어느 시기에 이인식은 만주 목단강 유역으로 가서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서 남모르게 정보 수집, 군자금 조달 등의 독립 운동을 하였다.

한편 이인식의 가계와 초중등 교육 및 혼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이인식은 전주 이씨 시중공파 문정공파 성동파 임피 입향조인 이화의 15세손이었는데, 앞의 이화가 16세기 중엽에 임피현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400여 년 동안 임피현 지역에서 세거하며 대대로 향리 직을 역임한 가문 출신이었고, 이태하와 조동학의 딸 김제 조씨와의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아들

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한 이후 임피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당시 나이 13세) 초에 제2회로 졸업하였고, 1916년에 서울의 사립 보성보통학교에 입학하고 그해에 당시 16세였던 가림 조씨 조감식의 딸 조득과 조혼하였다. 당시 이인식의 집안에서는 함열에서 대대로 향리 직을 세습하였던 가림 조씨 집안과 연혼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에 확인하지 못한 것들은 이인식이 3·1 운동 때 사전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것, 동경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자 중국으로 망명하였다는 것, 일본 동양 대학에 입학한 연도, 1920년대에 임피 지역에서 6·10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 등이다.

본고를 통해 새로 알려진 사실이거나 명확해진 사실들은 이인식의 가계가 4백년 여 동안 임피 지역에서 세세토록 거주하면서 향리 직을 역임한 전주 이씨 가문이라는 것, 이 가문에서 함열의 향리 가문이었던 가림조씨와 연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것, 이인식이 임피 보통학교를 1914년에 2회로 졸업하였다는 것, 3·1 운동을 했을 당시 이인식의 집이 서울 송현동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가 당시 서울 제동에서 하숙하고 있었다는 것, 이인식이 파고다 공원에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기 이전과 이후에 각각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을 배부하였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펼치는 시위와 3월 5일의 남대문 만세 운동 시위에 각각 참여하였다는 것,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본인 판사로부터 ‘징역 7월, 미결 구류 일수 90일 산입,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는 것, 1928년에 임피 지역의 야학에 의연금을 냈고 임피 보통학교에 소년악대를 기부하는 등 임피 지역의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 그리고 만주 목단강 유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한 시기는 1929년 이후의 어느 시기라는 것 등이다.

임피 출신 독립 운동가 이인식은 1919년 3·1 운동에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생 중간 대표로서 그리고 전라북도 학생 대표로서 독립 선언서와 독립신문을 배부하였고, 미국 영사관과의 연락책임을 맡았으며, 탑골 공원과 남대문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전북 학생 대표로서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이인식의 독립 운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금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1920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당시로서는 거금 8천원을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만주에까지 가서 임정 요원에 직접 건네주었다. 또한 1923년에는 동경의 동양대학교에 입학하고 금우회를 조직하여 월보를 발행하여 유포함으로써 유학생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1925년에는 임피 지역의 중학기성발기회에서 그리고 1927년에는 임피 지역 청년회의 혁신총회에서 각각 간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1928년에는

임피에서 야학에 의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출연하였고, 임피 보통학교에 소년악대 1조를 기부하였다. 실력 양성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만주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에 종사하면서도 독립 자금 모금과 첩보 활동 등의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이인식의 끊임없는 조국 광복을 위한 투쟁은 인내와 노력을 중시한 그의 삶의 자세에서 나왔다. 그는 22세 때인 1923년에 하계 방학 때 글 배우러 갔던 동무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강조하는 글을 작성하여 임피보통학교 동창회보에 실었다.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한 자세는 광복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광복이후 임피 중학교 교장 재임 시절에 학생들에게 훈화를 할 때에 그는 수시로 인내와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심지어 자신의 머느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이인식과 같이 학생 대표로서 3·1 운동에 참여한 이후 해방이 되기까지 줄곧 적극적으로 독립 운동에 헌신한 사람은 비교적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인식의 독립운동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것이 그의 일제 강점기 삶의 의의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인식의 독립운동은 향리 가문의 자제로서 막대한 자금을 독립 자금으로 헌납하는 등의 독립 운동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군산지역에서 옥구 지역에서는 향리 가문 출신으로서 의병 운동에 전 재산을 헌납한 임병찬이 있었다고 한다면, 임피 지역에서는 향리 가문 자제로서 독립 운동에 전 재산을 헌납한 이인식이 있었다.⁶⁴⁾ 본고에서 확인한 이인식의 독립 운동 사실들은 3·1 운동, 애국공채 모금,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 운동, 실력 양성 운동, 목단강 유역의 독립 운동 등의 일제강점기 각 분야의 독립 운동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3·1 운동 참여 학생 세대의 이후의 활동, 임피 지역을 포함한 군산 지역과 전북 지역의 독립 운동, 그리고 향리 가문 출신이나 그 자손들의 의병운동 또는 독립운동 등을 탐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본고에서 지면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해방이후의 이인식의 목단강 유역 그리고 임피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의 내용과 특징 및 의의, 그리고 그의 시대 인식 및 사상 등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후일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4) 기존의 연구에서 향리 출신 임병찬이 정2품 자헌대부에 오르고, 항일독립운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였다(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 운동』, 『전북사학』 44, 2014, 154쪽.). 임병찬과 이인식의 공통점은 향리 출신 또는 향리 가문 후손이라는 것,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에 일생을 헌신하였다는 것,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나라를 위해 헌납하였다는 것 등이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서울 송현동 62번지 토지대장』
『경향신문』
『獨立運動에 관한 건(제7보)』, 문서번호 高 第5971號.
『동아일보』
『臨陂公立普通學校同窓會報 創刊號』, 등사본, 군산 동국사 소장, 1913.
『매일신보』
『애국지사 이인식 선생 청출어람 제자들 이야기』, 황현택, 인문사artcom, 2016.
『우리 고장의 자랑 殉國先烈과 愛國志士』, 대한민국광복회 군산지회, 정명인쇄사, 2016, 제2부, 5. 군자금헌납 이인식(李仁植).
『유공자 정보 기록』, 국가보훈청.
『이병기 전창련의 산책』, 전창련, 도서출판토탈, 2016.
『이인식과 그 시대』, 이인식 선생 추모 문집 편찬위원회, 2014(1판·홍익재) · 2015(2판·홍익재) · 2019(3판·마하테크).
『臨中五十年史』, 임피중학교총동문회, 1999.
『임피초등학교 100년사』, 임피초등학교 총동문회, 2006.
『在京朝鮮人狀況』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1』, 『在京朝鮮人狀況』, 박경식, 1975.
『全州李氏侍中公派文正公世譜』, 3권 3책, 개인 소장, 1995.
『中外日報』
『鷲城椽房先生案』, 임피 노서당 소장.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국사편찬위원회, 권14, 15, 16, 17.

2. 저서 및 논문

- 김두현, 『18·19세기 중인의 초혼 연령 및 배우자의 신분』, 서울역사편찬원, 2009.
김두현, 『군산 지역 세거 가문 연구 현황과 전망』, 『군산의 근대 풍경: 역사와

문화』, 2015.

김두헌, 『군산 지역(조선시대 옥구현, 임피현) 세거 가문의 입거와 입거조』,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작』, 전국문화원연합회, 2014.

김두헌, 『임피 거주 광주이씨(廣州李氏) 이극견가(李克堅家)의 임피 입거(入居)와 타관으로의 이주』, 『군산학의 지형』, 2019.

김두헌, 『제주 고씨의 옥구 입거와 이후의 거주지 이동』,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2010, 33-61쪽.

김두헌, 『平康 蔡氏의 臨陂 入居와 入居 이후의 거주지 이동』, 『東洋學』 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3, 83-116쪽.

김두헌, 『군산 지역 가문과 인물 I -옥구편-』, 군산문화원, 2018.

김두헌, 『군산 지역 가문과 인물 II -임피편-』, 군산문화원, 2019.

김윤희, 『쌀의 일본 유출과 쌀값의 변동』, 『한국문화사』 권26, 4장, 2절, 2항 내,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09.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 운동』, 『전북사학』 44, 2014, 129-160쪽.

위경혜, 『식민지 개항도시 극장의 장소성 -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학의 지형』, 군산대학교 도시인문센터, 2019.

이경란, 『일제하 임피지역의 주변화와 조선인 유지층의 동향』,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 혜안,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Lee In-Sik(李仁植) from Im-Pi(臨陂)

Kim Do-Heon *

The family of Lee In-Sik(李仁植) from Im-Pi(臨陂) was the family of JeonJu(全州李), who served as Hyangri(鄉吏) for more than 400 years after his 14th generation ancestor, Ewha(李華), moved to the region of Im-pi County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Lee In-sik was born as the youngest of three sons and two daughters between Lee Tae-Ha(李泰河) and KimJeJoSsi(金堤趙氏). When he was young he entered Im-Pi General School after Chinese education, and graduated for the second time in early 1914. In 1916, he entered the private BoSeong General School(寶城中學校) in Seoul, and was married to GaRimChoSsi(嘉林趙氏) who lived in the Ham-Yeol(咸悅) area. At that time, a marriage relationship was formed between Lee's family and Cho's family.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三一運動) in 1919, Lee In-Sik participated in the hurray as a representative of Bosung Middle School. He led a protest crowd toward the US Embassy as a Jeonbuk(全北) student representative. In November 1919, he was sentenced to seven months of imprisonment calculated and summed 90 days of undetained detention and three years of probation. In 1920, he went to Manchuria, at his own risk, donated 8,000 won of his property to an agent of the temporary government(臨時政府) and received national bonds(愛國公債). In 1923, h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Indiana Philosophy of the DongYang(東洋) University in Japan, organized GumUHoi(錦友會), produced monthly papers and distributed them to Korean students in Tokyo(東京). In 1928, he donated funds to the night school at the Im-pi area and a group of boys bands at the Im-pi General School. In 1929 later, he moved to the Manchurian MogDan River(牡丹江) basin for independence, including collecting information and raising military fun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In-sik lived a life of constant struggle for the liberation of his country, which emerged from his attitude to life that emphasized endurance and effort.

Key Words : Lee In-Sik(李仁植), Im-Pi(臨陂), independence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三一運動), National bonds(愛國公債), GumUHoi(錦友會), Hyangri(鄉吏)

* KunSanJungAng Highschool, teacher

